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蘇聯의 家族法改正案 ―風紀와人口國策考慮―

一

蘇聯은 曩者 憲法을 改正코저 新憲法起草委員會가 任命되어 이미 起草案이 中央委員會까지 通過되엇다 하거니와 最近蘇聯은 다시 民法의 一部에 關하는 家族法을 改正하야 新憲法에 對應하리라한다。이案도 憲法草案과 마찬가지로 아즉 法令化한것이 아니오 草案에 지나지 못하야 人民으로부터 批判의 소리가 相當히 露露한모양이나 蘇聯政府가 이가튼 改正案을 提示한것은 적어도 蘇聯의 國策의 轉換을 示하는 證左로서 吾人의 注目꺼리라 안흘수업다

二

同家族法의 內容은 主로 墮胎、出産、産院、托兒所、幼稚園、兒童保險、離婚等 全文 八個條로 되엿는데 吾人의 가장 注意를 끄는것은 墮胎와 離婚에 關한 條文이다。即 첫재 墮胎에 關한 條文을 보면 從來 墮胎는 自由로워서 누구나 언제든지 醫師에게 墮胎할수잇게 되엿섯는데 今番에는 絶對로 墮胎를 禁止하고 萬一 이것을 違反한 醫師及 男子는 二個年懲役、女子는 初犯이면 譴責、再犯以後면 三百留의 罰金을 科하기로 되엇다。그리고 離婚에 對하야는 從來에는 男女間 누구나 一方的으로 離婚을 屆出하면 그뿐이오 夫婦間에 子女가 잇는 境遇는 女子가 그子女를 要求할때는 例外나 原則으로 男子의 責任으로 養育하기로 되엇섯는데 今番은 離婚에 반듯이 夫婦의 官廳出頭를 要하며 離婚經驗者는 그뜻을 파스·포트에 記入하며 離婚登記料로서 第一回는 五十留、第二回는 百五十留 第三回는 三百留를 支出해야하며 離婚時 子女를 그 母親이 養育할 時 男子는 子女 一人이면 自己月收의 三分의一、二人이면 二分의 一、三人及 그以上이면 六割을 養育費로 支出하여야한다。이것을 要컨대 墮胎나 離婚은 過去 絶對自由이든것을 아모쪼록 禁止又는 警戒하랴한다。

三

蘇聯當局이 이가튼 政策을 쓰게된것은 母體의 保護와 家族制度의 强化를 目的으로 하얏다 하나 그러하기를 머드려하거니와 그러나 입때껏 不當한 것으로 알엇든 墮胎及 離婚을 왜 이와가티 法律上으로 認定햇스며 正當視하엿슬가。蘇聯當局은 過去에 잇서서는 墮胎、離婚이 비록 낫벗스나 革命運動을함에 잇서서 不便이 잇는 姙娠、不當히 拘束밧는 婚姻을 그대로 放任한다는것보다는 차라리 墮胎、離婚함이 可하다는 見地에서 許하얏다 고할지 모른다。그러타。린제判事도 認定한바와 가티 盲目的 無思慮에 依하야 맺어진 姙娠、不當히 拘束밧는 結婚은 차라리 墮胎、離婚함이 可할것이다。그러나 今次 改訂되는 法律의 例外의 境遇를 認定치 안코 不當타하다고 禁止 或은 禁止에 가까운 登記料制度를 쓰것은 名[illegible]少數이다。

四

吾人은 蘇聯當局이 그런 例外의 境遇를 생각지 안헛스리라고는 생각지 안는다。다못 從來에 너무나한 放縱이 國民의 風紀를 紊亂시킴이 크고 도리혀 作戰에 惡用되므로 反動的으로 이러한 禁止的 法律을 制定하라는것이 아닌가。共産主義의 蘇聯이라 할지라도 墮胎、離婚을 社會的 好現象이라고 생각할 理由는 업슬것이다。이런 點으로 보아 過去 蘇聯의 一部 靑年間에 濫行된 離婚、墮胎를 正當한 [illegible] 時에 對해서는 嚴[illegible] 一針이 될것이다。그리고 이 家族法의 墮胎禁止及 離婚條件의 嚴格은 다못 社會問題에 依한것이 아니오 國防問題와도 關聯되지안흘가한다 即 國土廣大하고 産業 또한 發展途程에 잇는 蘇聯으로서 現在의 人口대로 放置하는것은 一朝有事의 時에 安心되지 안는다 이에 人口를 增加시켜 國防에 充實코저함도 또한 一齊이라 안흘수업다。

擴大되는 米國의 太平洋軍備

알라스카地方에 陸空軍根據地新設

規模는 眞珠灣보다도 廣大!

【시아틀發電】오하이오州選出民主黨下院議員 바사룡·하-란氏는 商務省의 委囑으로 알라스카 地方視察에 赴하는 途中 二十六日 시아톨에 到着하엿는데, 米國政府가 北太平洋上의 防備策으로 알라스카地方에 尨大한 根據地를 建設할 方針이란 言明을 하야 如左히 말하엿다。米國政府는 알라스카地方에 陸軍及 空軍根據地를 新設할計畫인데 右根據地는 布哇 眞珠灣 根據地보다도 一層 規模가 廣大할 모양이다。

國策調整問題로 內閣三長官協議

【東京電話同盟】藤沼書記官長、次田法制局長官、吉田調査局長官은 二十九日午後一時부터 首相官邸에 會合하야 國策審議閣議에 處할 內閣의 方針에 關하야 協議한바잇섯다 그런데 內閣側으로서는 各省立案의 國策을 一擧에 附議하는것은 審議上 부질업시 煩雜에 흐를 時間的으로도 오래끄을뿐 아니라 或은 非常히 困難한 事態에 逢着하리라는 見地에서 各省案을 事前에 調整하고 閣議에서는 一、먼저 時局에 處할 國策的 事業項目을 假決定할것 一、이에 對하야 各閣僚는 各省의 立場을떠나서 國務大臣으로서 具體的審議를 進行하야 그런後에 이에 要하는 豫算槪算에 關하야 審議를 進行해서 八月十日까지에 總括的決定을할것 이에 依하야 明年度豫算의 計上에 着手할方針을 取하는것이 最善策이라 그런데 內閣三長官은 近近 各省事務當局과 個別的으로 會談하야 各省案은 적어도 一段三段式으로 餘裕잇는 案을 提出하도록 要望하고 各省案의 調整을 圖하기로되엇다

西歐革命工作에 트로츠키氏起用?

【哈爾濱發】西班牙革命에 援助하는 佛國、白耳義의 大罷業禍에 콤인테른의 손이 움즉인 形跡은 만흔데 二十四日伯林發 라디오에 依하면 前記西歐諸國의 赤化擾亂에 際하야 콤인테른의 暗躍을 다시 實際的으로 操縱하고잇던이는 蘇聯革命의 元勳으로 永久不斷의 革命理論으로써 스탈린과 相容되지안혀 亡命한 트로츠키라고한다 即 콤인테른은 西班牙의 革命工作 佛國罷業에 對한 指令에 際하야 蘇聯政府와 前記政府間의 衝突을 避하기爲하야 트로츠키를 起用하게되것으로 트로츠키는 그作戰本部에 佛國人쌍·메니프레르及 壽府의 社會主義革命同盟리다·프레드첼레르를 加하야 츄니스·알제리、모록코等의 武裝蜂起를 企圖하고잇섯다

樞府本會議 來七月一日開催

【東京電話同盟】定例樞府本會議는 一日午前十一時부터 宮中에서 開催하고 過般審査委員會에서 決定된 左記二件을上程 正式決定하기로되엿다

一、馬政局官制制定의件
一、奏任文官特別任用令中改正의件

商工省의 新國策 製鐵、燃料、貿易

【東京電話同盟】商工省에서는 重要國策으로 先議問題에 關하야 目下 重要産業政策에 關하야 審議를 開하고 成案을 急行中인데 小川商相이 압서 聲明한 製鐵、燃料、貿易의 三大國策을 爲始하야 中小商工業對策、原料産業對策等에 向하야 나아갈方針이다 即

一、製鐵、從來의 日鐵中心主義를 再檢討하고 새로 原鑛石獲得을 圖하는一方 製鐵獎勵法의 根本的改正을 行할것
一、燃料、內外資源開發에 努力하고 燃料工業의 助成發達을 圖하야 國防上 産業上의 支障이 업게할것 이를 爲하야 現在의 機構를 고처 새로 燃料局을 設置할것
一、貿易、通商自由의 原則下에 昨今의 貿易上의 障害를 除去할 適正한 措置를 講究하야 新販路獲得을 爲하야 이獎勵策을 세울것
一、中小商工業、充分히 그機能을 發揮하도록 商工業組合法의 運用方針을 定하는同時에 그普及發達을 助하려고 組合法을改正할것 또 近近實現될 商工組合中央金庫의 利用增進을 圖하기爲하야 保護制度에 對한 施設을 講究할것
一、原料의 産業、羊毛、고무、棉花等의 原料獲得에는 積極的으로 保護獎勵하야 原料供給의 不安을 一掃할것

中國兵의 暴行 朝鮮人一名또被害

【北平二十九日發同盟】二十八日午前十時半頃 日本人一名朝鮮人一名이 商用次 豊台에 赴하엿던바 當地駐屯宋哲元部下 兵士若干에게 突然 兩名이 包圍毆打되어 日本人은 兵營內에 拉致되고 朝鮮人은 간신히 逃走하엿는데 압서 日本兵士에게 又復 暴行을 加한 宋哲元兵士가 故意로 日本人에게 暴行을 加한것으로 如斯한 侮日事件頻發에 對하야 日本軍當局은 極度로 憤慨하고잇다

北中增兵不中止면 抗日標榜不撤回

日本側抗議不拘코西南態度依然不變

【東京電話同盟】西南派의 反日政策은 反中央標識로 漸次 强化하는 傾向에 잇스므로 外務當局은 西南當局에 對하야 嚴重抗議하도록 廣東總領事에 訓電을 發하엿스므로 同總領事는 右訓電에 基하야 二十九日 公文으로써 第一集團軍總司令陳濟棠氏에게 對하야 抗議를 提出하고 排日運動의 嚴重取締를 要求하엿다는바 그런데 西南側은 右抗議에 對하야 外務省에 入電이 잇섯다는 西南擧兵의 目的은 日本의 北中增兵反對에 잇스므로 日本이 그增兵을 中止치안는限 反日標榜을 撤回할수업다고 依然 排日運動繼續의 氣勢를 보이고 何等 誠意를 認定할것이 업스므로 外相은 陸軍當局과 連絡을 取하야 駐中官憲을 督勵하야 監視를 嚴히하는同時에 西南派가 反省하기까지 抗議를 繼續하기로되엇다

陸軍當局抗議繼續

喜多少將北上

【上海卄九日發同盟】大使館附武官 喜多少將은 西南을 視察하고 卄來滬한 高橋大佐를 帶同하고 卄九日午後四時 上海發列車로 陸路北上하엿다 喜多少將은 天津에서 田代中國駐屯軍司令官과 參謀本部第二部長과 會見하고 最近의 國民政府의 情勢 特히 國民政府의 對西南關係及 微妙한 動向을 示하고잇다 北中情勢에 對한 國民政府의 動向에 關하야 詳細說明하고 또 北中經濟開發具體案에 關하야 重要協議를 行할터이다

總經費六億圓으로 防空施設을 整備

六大都市와 北九州一帶에 十五個年繼續事業

【東京電】國際情勢에 鑑하야 重要都市의 防護는 緊急을 要하는바가 만흐므로 內務省都市計畫課에서는 이防護計畫에 對하야 相當한後 實現을 期하고저 爲先 東京、京都、大阪、神戶、名古屋、橫濱의 六大都市와 川崎及 門司、小倉、戶畑、若松、八幡의 五市를 包括하는 所謂北九州一帶의 地區를 選擇하야 總事業費 約六億圓 十五個年計畫의 一大防空施設을 整備하기로 되어 國庫補助 約六千萬圓中 十二年度 豫算에는 四百萬圓을計上하기로되엇는데 右防護計畫의 槪要는

一、防火地區及 綠地帶의 整備를 期하고 水路、公園、廣場等과 아울러 防火計畫을 設定할것
二、不良住宅地區 其他火災上危險이만흔 地區의整理、上水道配水幹線의 連絡과 貯水槽의 設置에 依하야 防火、消火에 備할것
三、避難上과 防護活動上 支障이 업게하기爲하야 主要幹線道路의 路上工作物을 整理하고 特히 架空의 通信과 送電線을 地下의 共同溝에 埋沒하고 아울러 都市의 美觀을 圖할것 等이다

佐佐木氏殺害事件의 英國側領事裁判 不公正타고日本서抗議

【東京電話同盟】滿洲國軍政部員 佐佐木氏殺害事件에 關하야 二十九日 北平駐在武藤書記官으로부터 外務省에의 報告에 依하면 英國領事裁判은 去二十四日 北平에서 開廷하고 裁判長英國副領事모-리스氏、檢事英國高等法院檢事옷드氏、被疑者 英國兵士 辯護人젠드램護士等에 依하야 構成되엿는데 特히 奧村書記官이 옵저버로 出席하고 日本人證人도 好意的으로 列席케하야 裁判進行에 協力케하엿는데 日本人證人에 對하야 옷드檢事의 訊問態度는 被疑者擁護의 證據로 만드는 傾向이잇서 北平大使館事務所에는 이것을 遺憾이라고 二十六日 武藤書記官은 코-안 英大使館書記官에게 公文書로써 嚴重抗議하고 正當한 裁判의進行을要求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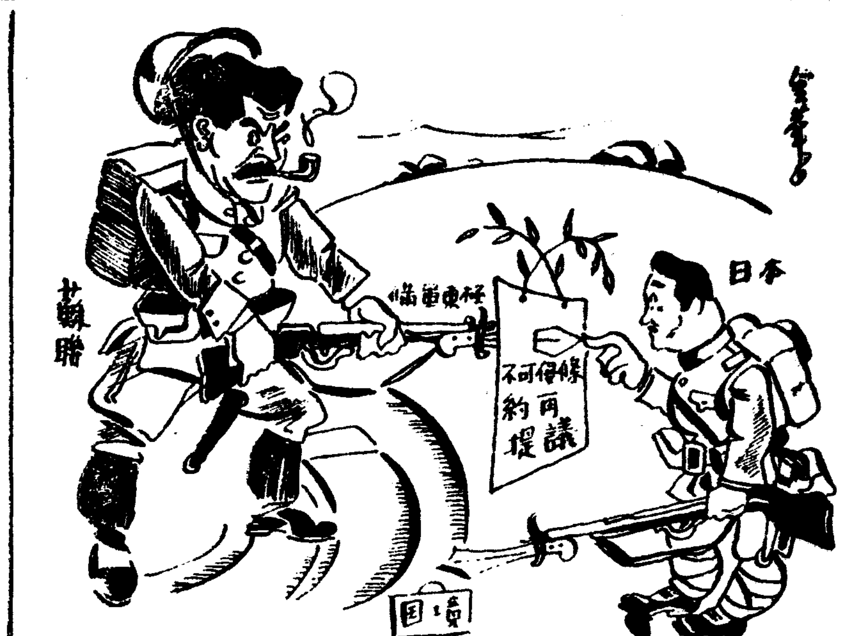
海軍當局通告의 三項目內容

日本國旗侮辱事件

【靑島二十九日發同盟】中國稅關監視船이 日本船茂益丸에 加한 不法行爲에 關하야 第三艦隊司令長官及 中將의 命을 바든 靑島駐在武官田尻中佐는 二十九日午前十一時 稅關長간벨氏에게 對하야 左의 重要聲明을 通告하고 日本海軍의 斷然한 態度를 明示하엿다 日本帝國海軍은 下記三項을 聲明함

一、今次의 靑島稅關監視船이 日本船茂益丸에 對하야 그日本國旗를 投棄하고 다시 暴行을 使用한것은 重大事件이다
二、自今 稅關監視船의 不法行爲에 對해서는 日本側은 斷乎한 處置를 取할것이다
三、日本側은 海岸三哩以內를 領海라고 認定하고 三哩以外는 領海로 認定치안는다

時事漫畫 日이 한번 挑戰한것을 총끄려 꿔여서 威脅한다고…」



中國側不遜態度에 係官派遣嚴重調査

【北平二十九日發同盟】宋哲元軍의 侮日事件에 關하야 二十八日夜 北平日本陸軍當局으로부터 係官이 出張하야 被害者明正善吉氏의 引渡를 要求하엿는데 灣長은 不遜態度를 示하고 拒絶하얏슴으로 日本大使館에서는 二十九日 係官을 派遣하야 調査完了를 기다려 近近 觀察當局에 正式抗議를 提出하기로 決定하엿다 被害者는 顏面이 毆打되어 全治二週間의 重傷을 負한것이 判明되엇다

內務省豫算省議

【東京電話同盟】內政改革에 關하는 國策豫算審議의 內務省豫算省議는 二十九日午前九時半부터 內相官邸에서 開會하고 潮內相、鑾島、湯澤兩次官、肝付參與官以下 首腦部가 參集하야 爲先 國策豫算과 함께 明年度豫算도 同時에 審議하기로되엇는데 神社、地方兩局의 關係豫算에 關하야 館神社、大村地方兩局長으로부터 國策豫算으로

一、伊勢神宮을 中心으로한 神都計畫
一、地方自治振興에 關한新規事業
一、地方財政調整交付金制度의恒久化

等의 豫算槪算과 實施計畫에 關하야 詳細히 說明하야 一日 內定하엿스나 最後的決定을 보게되지안코 正午에 一旦休憩하엿다 午後一時에 續開하고 警保、土木、衛生、社會의 各局別로 順次 審議할터이다

人事·集會

◇新藤高尙氏(全南知事)二十九日午後三時三十分倭城台殖産局長官邸에서別世

夕刊後市況 卄九日

◆大·短期·乘配◆
大新 七〇一〇 (不變)
鍾新 一五七二〇 (二〇高)
日産 六九五〇 (二〇高)
東新 一二八二〇 (一〇低)

◆橫濱 生糸 後引◆
當限 —— 先限 七〇〇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 先限 五八〇〇

歐洲危機打開次 英佛間重要會談

【쥬네브二十九日發同盟】佛國代表블룸首相、델보外相은 二十八日夜 英國代表이든外相을 訪問하고 晚餐을 가티하면서 聯盟總會對策을 中心으로 歐洲政局의 危機打開策에 關하야 重要會談을 遂하엿다 會談의結果 英國代表는 左의 結論에 到達하엿다고 誰聞되다 伊에兩國間의紛爭이 終局을 告한 事實에 鑑하야 伊太利에 對한 制裁行動을 全面的으로 撤回할것 但 制裁撤回에 當하야 聯盟各國政府는 協調를 圖하고 相互間의 調整을 期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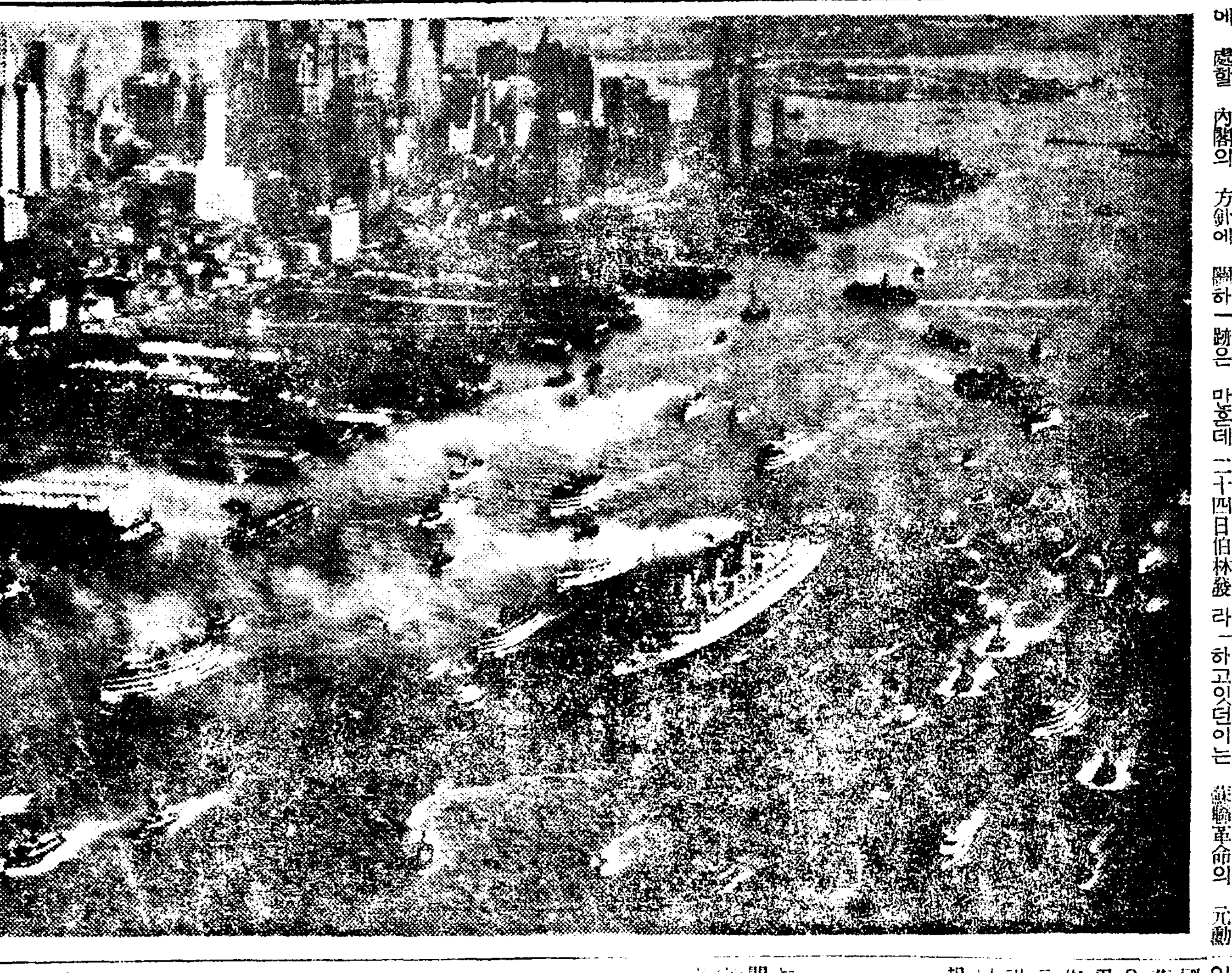
一、但 伊太利政府의 에디오피아征服과 倂合의 旣成事實에 關해서는 承認을 與하지안흘것 勿論 總會가 滿洲事件同樣으로 不承認決議를 上程表決할는지 그與否는 決定되지 안헛는데 英國代表는 不承認決議上程에依한 國際政局의 紛糾誘致를 不好하고 反對意見을 表明하엿다
一、制裁案을 撤去하더라도 即時 地中海로카르노協約案其他를 提示하고 伊太利政府와全面的交涉을 開始할것 如한 行動을 取하지안흘것
一、英國政府의 覺書에 對한 獨逸政府의 回答은 아직 接受치안헛고 伊太利代表도 出席할는지 疑問이므로 總會開會中 正式으로는 로카르노協約會議를 開催치안흘것

그런데 佛國代表는 聯盟規約第十六條의 制裁條項을 堅持하고 同條項의 實效를 確保할것을 主張하엿는데 英國代表도 右에 對해서는 大體 異議가 업다고 보인다 그리고 今回의 總會에서는 特別委員會를 任命치안키로되엇다 그런데 右會談에서 英佛兩國代表는 끗까지 緊密한 協力關係를 維持하야 善處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엇다고 생각되는데 兩國代表는 消極的으로 危機打開策을 決定치안코 消極的으로 公約한데 끗첫다고보인다

資本國外逃避의 刑罰加重法可決

佛國下院全員一致로

【巴里發電】佛國下院은 卄六日夜 國外財産屆出에 關한 刑罰加重法案을 審議한結果 一票의 反對도업시 全院一致로 百四十二票의 贊成으로서 右法案을 可決하엿다 法案提出에 當하야 藏相 방상·오리올氏는 如左히 述하엿다 佛國國民은 遺憾이나마 自國을 充分히 信賴하지안코 資産을 國外에 가저나가는 故로 政府는 國外資産의 屆出勵行을 國民에게 要求하고 懈怠할 境遇의 處罰規定을 加重할밧게 업시되엇다 案은 要컨대 國民的訓練[illegible]이다 法貨의 現狀은 安定의길을 밟고잇는데 六月十九日까지는 特히 金의國外流出이 잇섯스나 最近은 再次 還流中이다 六月卄四日에는 三億五千萬法의 金이 法貨에 復歸하엿다 同時에 國際價格도 數포인트의 昂騰을 보여 法貨는 一般 安定되엿다。



英國의 大氣船 퀴인·마리號의 뉴욕入港을 歡迎하는光景

今年小學卒業生諸君!! 自宅에서 中學을 卒業하시라!!

全國靑少年諸君! 家庭의 事情으로 中學에 못가는것을 가엽게 녁일必要는업다 前文部次官、衆議院議員 [illegible] 博士가 會長인 有名한 國民中學講義錄으로 自宅에서 獨習하면 겨우 一年이면 中學全科를 完全히 習得할수잇다。

昨年末文部省에서 調査한데 依하면 三井、三菱、安田等 大銀行、大會社의 課長級 八百七十名中에서 學歷은 小學校뿐이고 다음은 獨學으로 中學卒業以上의 學力을 獲得한분들이 실로 四百五十名이라고한다 今後는 더욱 實力時代다。더욱히 貴重한 時間과 費用과를 節約함에는 信用잇는 講義錄을 보는以上 더업다。

國民中學講義錄 每月三百頁以上의 講義錄과 雜誌、그리고 굉장한附錄까지 每月 보시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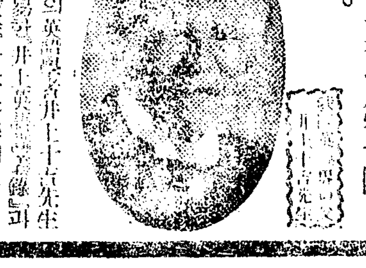
詳細는 東京麴町富士見町三ノ廿三 國民中等教育會 에 見本送付하라고 申込하면

新學期開講·新入學生募集

井上英語講義錄

눈과 귀로부터 英語를

靑少年諸君! 初夏은 立身의武器 英語를征服하라! 石手쟁이아들로 總理大臣이되는 實力의世上인즉、더욱히 英語를 아는것이야말로、立身의 第一階이다。



日本一의 英語學者井上十吉先生이 編纂한 井上英語講義錄과 라듸오放送으로 大好評의 토ー마스先生의 英語레코-드로 自宅에서 習得하면

一個月에 英語가 읽게되고
二個月에 英語가 쓰게되고
三個月에 英語로 對話되리라

講義錄月二回 雜誌一回配布 레코-드 外九大附錄贈呈 月謝一圓卅錢 三個月마다 進呈

內容見本進呈

申込所 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三丁目十九番地 井上通信英語學校

文部省 國定敎科書筆者 井上千圃先生指導

日本ペン習字

肉筆本位 通信敎授

日本ペン習字研究會

돈낭잇는 農村사람들 寄附등살에 못살지경

登山隊歡待에도 民間에서 會費를募集

舍人面、官公吏의處事에非難

【舍人】 평남순천군(平南順川郡) 사인지방은 근래에 너무도 여러가지의 부담이 과하야 중산이상게급들의 도시에로의이주경향이만하여진다함은 이미 본보에 보도한바와 갓거니와 그중에서도 서희롭밧는 긔부모집이 성행하여 또다시 말성을일으키고잇다는바 더욱이 일반의 고통이되여잇는데로서는 관공리들이 직접으로 나서서 모집함으로 필요치도 안흔것이여도 거절하지못할 형편이여서 읍모하는 메해가、만타는데 그ㅣ일례를 조사한바에 의하면 아래와갓다

지난이십일일 사인면장을 위시하야 각관공청장오륙명의 발긔로 직접 전긔면장과 산림주사등이 나서가지고 일반민간에서거액의긔부금을 모집한일이잇섯다는바그러지안허도 찌절매든등민간에서는 모집위원이관공리라피하기어려움뿐아니라 도지사가 오느니 내무부장이 온느니 하는바람에 할수업시 이원이상오원의 거액을 승낙한 사람이수십여명에 달한다는바 그중에서도 후탄면(厚灘面)부근일대에서는 기부를한은 물론 도지사의 시찰온다는 도로의개수 음직의 준비등으로 분망하야 철궁일각인 요사이의 농사일까지 제처노코 기다린사람까지 만핫섯다 그러나 결국 온다든 도지사나 내무부장은오지도안코 말엇슴으로 일반은 의아하여 그후알어보매 그날사인면 송령리(松嶺里)에잇는 백족산(百足山)의 련화봉(蓮花峰)을 구경왓든 산악회원의등산대 십여명을 환영하엿슴에 불과한형편이라 결국은 도군 기타 자기상관들을 대접코저 기부까지 모집함은 당국자의탈선적처사라고하여서 일반의 불평과비난이 벌등한다

도리혀未安莫甚

그후산림주사(森林主事)박정순(朴正淳)씨의 말을 들으면아래와갓다

▲朴氏의말―금번 도산림과장이하 등산대를 환영한것에 대하야 이가튼여론이잇다 하니 주최햇든 저로서는 와돈손님에게 도리혀 미안막심한일입니다 예산은 칠팔십원하엿섯는데 동정해주엇든이들의불평이잇다니 실로죄송합니다 만일낼수업다면 우리들 발기인의 부담이될수박게업지요운운

七十餘圓寄附募集 登山온上官歡待

抑何心腸으로이런짓을햇나?

面長과記者의一問一答

전기 기부금사건에 의혹이며 불평이 일반에 적지안흔 모양임으로 기자는 이십륙일 전긔면장 리관규(李寬奎)씨를 차저서 아래와가티 물어보앗다

기자 등산대환영비를 민간에 기부모집하엿는가?

면장 기부라기보다도 회비로바덧다

기자 그러타면 회원들은 알지도못하게 환영회를 열엇나

면장 면소사를보내여 전부청하엿지만 자기의사정상 오지안헛다

기자 반다시 환영해야할필요는?

면장 본면내의 백족산을 탐승오니만큼 본면의 영광이라 그저잇슬수 업섯다

기자 후탄면민에겐 엇지하야?

면장 그산의 한쪽은 후탄면에 속한고로 합동햇다

기자 예산은얼마나 햇섯소?

면장 륙칠십원 가량하엿다

기자 너무만치안헛슬가?

면장 팔십여명온줄알엇는데 적엇다

기자 얼마나 왓섯소?

면장 전부가삼십명가량되엿다

기자 예산에서 남지안헛슬가?

면장 이미준비햇던고로 맛찬가지될것이다

기자 도지사가온다고 함으로 승낙햇다니 사실인가?

면장 산악회 회장이도지사이여서 올줄로 알앗드니 아니왓다

기자 등산노리오는것을 엇재서 시찰온다고 햇든가?

면장 그것은 헛소문이다

기자 후탄면방면서는 그일로준비에 밧벗다는데 사실인가

면장 그곳의 산림주사만 갓던고로 자세히 알수업다

기자 모집금액은 얼마나되나?

면장 그것도 산림주사가 마련햇스니 자세히알수업스나 예산과 비슷할것이다

"疑惑을풀도록"

某警察官의談

나도그일에 수차로 들은바에 의혹을 품고잇는자도 보앗스며 불평을 말함도 들엇다 속히결산보고래도 하게하야 일반의의혹을풀어주어야 하겟다

寄附한사람을無視 歡迎席上에不請

이런會費는낼수업소

◇…寄附者舍人面某氏 談

금번당국의 긔부사건은 실로 우리민간을 무시한 경거라고 봅니다 필요도업는 긔부금을 내라고 관공리의립장에서 거액을 모집하야 자긔네상관들을 대접하엿슬뿐으로 우리에게는 아모 통지조차업섯스니 그런무지한행동이 어데도잇겟습니까? 나에게도 멧원억지로 적어갓스나 그런무의미한 회비는 낼수가업소

失戀厭世의 飮毒二重奏

【淸津】 청진부포항동(浦項洞)에서청년두명이 세상을비관하고자살코자음독한사건이생기엿다 그자세한내용을드른즉 부내포항동에잇는 청송양복점(靑松洋服店) 직공으로잇는 리태순(李泰順)(二○)과、천합양복점(川合洋服店) 직공인 김덕찬(金德贊)(二○)은 다가티 이세상을 저주하든 끄테 차라리 죽엄으로써 모든것을청산코자 이십륙일 오후두시에술과양잿물을 사가지고 례배당골 뒷산으로가서 술을취케 마신후에 가지고갓든 양잿물을 먹은것이라는데 전긔 김덕찬은시내 모녀자와달콤한사랑을 속삭여오다가 녀자에게 실련을당한후 세상을비관하고 리태순은 독신(獨身)으로 얼마되지아니하는수입으로 그날그날 지내여오다가자긔의구차한 생활을 비관하고 전긔와가티 자살코자 하엿다는데 당일오후 두시경에 전긔두사람이상점에 잇지아니함으로 주인은 어데로놀너갓거니 하고 무심히잇섯든바 청송양복점에서 양복을다리고자 들추는서슴에 이상한편지한장이 떠러짐으로 펴여본즉『의외에도 이세상을떠나가니 뒤에남은 모든일을 주인여뎌라』는 유서임으로 주인은 에놀라 사방으로탐지한결과 괴장소에간것을알고 급히달려가서본즉 다가치혼수상태에빠진것을 즉시포항동의원(浦項洞醫院)에입원케하야 응급수당을가하엿는데 생명에는관계업스나 약이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리라한다

咸北赤色農組被告 一審判決에不服

廿三名中十六名이控訴

지난륙월십륙일 청진(淸津)지방법원에서 징역최고륙년으로부터 최하륙개월까지의 판결을바든함북적색농민조합사건의 피고 김귀남(金貴男)등 이십삼명중 다음열여섯명은 일심판결에 불복하고 곳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야 그사건관계록전부는 이십구일 경성복심법원으로 넘어왓다

▲金貴男▲朴昇龍▲鄭昌燮▲崔三甲▲孟鍾鎬▲鄭日仁▲吳格石▲吳日松▲李一洙▲申昌得▲崔學松▲車鐵弼▲白龍孫▲李基昌▲金龍三▲鄭德石

學窓修學의몸으로 路上에서衝突亂刺

新義州高普生이三務學校生을短刀로

被害者兩名은入院加療中

【新義州支局電話】 지난이십팔일 오후 여덜시반경 시내약죽정(若竹町)제일보통학교 압길에서 저녁밥을 먹고 산보차로 나갓든 사립삼무학교인 삼무학교 삼학년생 리재선(李載善)(二○)과 김병간(金炳玕)(一○)량명이 지나가는것을 그때마침 그길거리에서잇든 신의주고등보통학교 사학년생수명이 삼무학교생도들을처다본것에서부터 말다툼이 시작하야 삼무학교생도 네명이먼저 신의주고보학생 리종일(假名)이을 때려서 중상을시키엇다 이에분개한 신의주고보생도들은등급생 네명을 청병하야 마즈내 거리에서의 큰싸홈은 벌러젓는데 필경에는 신의주고보생이주머니칼을 빼어서 전긔삼무학교삼년생 리재선의 울툭편 넙적다리에 널비 두센치 기피 다섯센치의 중상을 입혓고 김병간도 뒤ㅅ머리와 억개에 칼을마젓다한다 그중 리재선의 상처는중상이여서 출혈이 만함으로 그자리에 졸도한것을 통행인이 발견하야 곳신의주경찰서에 고발하엿다 급보를바든 신의주서에서는 피해자 두사람을 그부근 로송정(老松町)에잇는 동양의원(東洋醫院)에 입원식혀서 응급치료를 밧게하는 한편 가해자 신의주고보생들을 인치하야 상해죄로 취조중이라는데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관계업슬듯은 하나 매우중태임으로 완치되기까지에는 상당히 오래걸릴듯하다한다 그리고 그두학교생도들은 평소에도 피차간에감정이조치못하지나 아니하엿는가?또가해자와 피해자 끼리는 무슨사감이 나업섯는가도취조하는중이다

兩校當局者의말

眞狀調査後嚴罰方針

新義州高普 目黑校長 談

별항=돌발한 불상사로 신의주에서는 갑작이큰 충동을일으켯는데 이사건에대한 신의주고보와 삼무학교당국자의 처치방침을알고자 곳두학교당국자를방문하엿드니 다음과가티 말한다

글세올시다 넘우도 의외엣일이라 아직 어떠케처벌할는지 결정은 못햇습니다 아프로진상을 철저히 알아본후 학무당국에보고하야 명령을기대리여서、선처할가합니다 하여간 아직 한창에서 공부하는중학생들로 큰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엿고 필경은 칼부림까지 한것은 무지막대한 사람들의 행동과다른것이업스며 더구나 그들 개인의 행동이 세상을 식끄럽게한것은 여간불상사가 아니며 학교당국자로서 미안천만한일입니다

三務學校의 金子敎務主任 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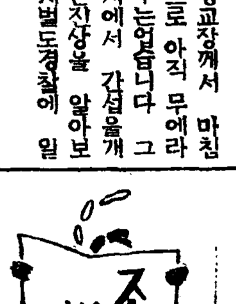
우리학교 대뎡교장께서 마침 출장부재중임으로 아직 무에라고도말슴들일수는업습니다 그러나이미경찰서에서 간섭을개시햇스니 모든진상을 알아보는동시에 그처벌도경찰에 일임하겟습니다

시비와곡직을 가리기전에 배호는몸이라는신분을 일허버리고 싸홈질칼질까지한것은 아모리 생각해보아도 온당치못한 행동입니다 그들의 흥분이식기를 기대려서 학교서도 그진상을 조사해볼작정이며 엄벌할방침입니다

觀測所뺏겻스니 海洋觀測所나두라고

仁川府民陳情키를準備中

【仁川】 문제중의 인천관측소는 마침내 군사상(軍事上)필요로국방(國防)을 위하야 경성으로이전키로되엿다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그준비가 착착진행되야 소화십이년시월에 이전키로 되얏다는데 그대신 경성측후소가 인천으로 오게된다는 소식을접한 인천부민은 밝서 이에대한 물론이 적지안타는데 관측소이전문제는 군사상필요를 전제로 한것임에 반대를 할수는업스나 교환조건으로서 인천에 해양(海洋)관측소를 설치하야 주겟다는것을 약속하야달나는뜻을 총독부에 진정할작정으로 목하모데 밝서부터 모방면에서는 모모유력자들이 협력하야 방금운동에 분망중이라는데 일반부민의 만흔 성원을바라다한다



▲『파리』라면 일만가지 전염병의 매개물로 녀、나할것업시 눈시살을 찌프리는 바이지만 ▲이놈이 우리네사사집에서 들끄러독에이、더럽군!』하거든 ▲한울며 공중을 태우는 전차속가튼데서 악마구리 끌틋 와글와글한다면 뭣이라할것인고? ▲요새 마포선(麻浦線)전차를 타고 보면 그것은 전차가 아니라파리움이야!▲온 대경성장안의 점자는손님을 실어나르는 교통긔관치고 코 그따위로 파리떼가 들끌케 내버려 두는법이 어데잇담! ▲돈버리대왕의 아호(雅號)를가진 경전(京電)의 간부제공―마포선전차의 복선을 노하주는것도 안고마운게 아니지만 그보담 압서 그쪽전차안의 파리좀 박멸하는게약하?

靑葉町에赤痢發生

청엽정(靑葉町)일백삼번지 암본춘태랑(岩本春太郎)의 큰딸민자(敏子)(三)는 이십이일 발병하야 이십구일 오후 적리(赤痢)로진단되야대학병원에 입원치료중이라한다

黃海의濃霧로 聯絡船이失路

【門司電話同盟】 이십구일 문사(門司)에 입항 예정인 일만(日滿)련락선「우스리」환과 천진항로의 남령환(南嶺丸)은 황해일대의 맹렬한농무(濃霧)로 인하야 진로를일코 조선칠발도(七發島)해상에 가정박을한후 농무가 개이기를 기다리고잇는데 오날안으로 입항하기는 어려우리라고한다

兄의酒邪에들복겨 老母업고投海(自殺未遂)

죽엄으로써 兄의悔改를希願

釜山의骨肉間悲話

【釜山】 부산부중도정(中島町)일정목 무직 정겸산(鄭謙山)(二五)은 본래 방탕자로서 술만먹으면 과수의 나만흔 어머니와 어린아우중분(中分)(一○)에게 란폭한 행동을하야 그들은어머니와 어린아우는 남모르는 눈물을흘린일이 한두번이아니엿스나 친아들이요 친형이라 하로밥비 개준하기를 바라고잇섯다 그런데 지난이십륙일석양에도 술을만히 먹은 정겸산은 가진욕설을하며 자식으로서 또는 형으로서 차마하지못할 란폭한 행동을하므로 견듸다못해 죽엄으로써 불효막심한 아들을 개준시키고 패륜망덕한 형의마음을 고치게할 결심으로 동일오후일곱시반경에 그아우가 늙은어머니를업고 부내남빈정(南濱町)해안에서 투신자살을 도모하얏스나 때마침그근방에잇던 제삼보주환(第三寶珠丸)선창이 발견하고 구조하얏스며 그불효막심한 아들정겸산은 이사실을 탐문한 경찰서에 호출되여 간곡한설유를 밧고나왓다한다

江村有情 (雨後에빗분漂母들) ──(昨日 麻浦에서)

運動競技

女子庭球個人戰 女高普決勝에

今日、二高女와決戰

京日主催의 第十八回全朝鮮女學生庭球個人戰은 廿九日午後三時半부터 京城運動場庭球『코ㅣ트』에서열린바 이날 京城女子高普의 韓貞順 李春鄉組는 第二高女의 神保 古賀組와 決勝戰에서 對時케된바 日沒關係로 今卅日午後五時부터 黃金町一丁目殖銀『코ㅣ트』에서 繼續擧行하기로되엿스며 第一部(一般戰)戰은 決勝戰이 잇기前 午後四時에 擧行할터이라한다

◇第一回戰

○高女(韓貞順·李春鄉)4…0女一(前野·間瀨)×
○德同(朴光天·李姬)4…1女二(寺島·木村)×
○明淑(金貞子·李圭淳)4…3女海(竹丸·井浦)×
○明進(金貞順·金榮彩)4…0女二(前原·佐野)×
×高女(金炳烈·李福淑)棄 女一(本山·佐藤)○
○女二(木村·毛利)4…1女海(淸水·村山)×
○德同(張燦煥·吳鳳雲)4…3高女(金福淳·金順媛)×
×明進(申龍鉉·徐廷五)1…4女一(牧野·江川)○
○州海(崔貞淑·山邊)4…0女二(淵上·藤村)×
×明進(崔順玉·李相烈)1…4高女(金鍾沃·林惠玉)○
○明淑(趙玉姬·鄭世龍)4…1女一(佐貫·中西)×
○德同(姜鍾宣·崔肅貞)4…0女二(中村·岡田)×
×德同(俞淑松·尹玉寅)0…4女一(潁川·森)○
×明進(朴桂順·李淑姿)棄 女二(松尾·福田)○

◇第二回戰

○高女(金鍾沃·林惠玉)4…0州海(崔貞淑·山邊)×
○明淑(趙玉姬·鄭世龍)4…2德同(姜鍾宣·崔肅貞)×
×州海(李義禮·早瀨)0…4女二(神保·古賀)○
○女一(潁川·森)4…1女二(松尾·福田)×
○高女(韓貞順·李春鄉)4…1德同(朴光天·李姬)×
×明淑(金貞子·李圭淳)2…4明進(金貞順·金榮彩)○
○女一(本山·佐藤)4…1女二(木村·毛利)×
×德同(張燦煥·吳鳳雲)3…4女一(牧野·江川)○

◇第三回戰

○高女(韓貞順·李春鄉)4…1明進(金貞順·金榮彩)×
×女一(本山·佐藤)棄 女一(牧野·江川)○
○高女(金鍾沃·林惠玉)4…2明淑(趙玉姬·鄭世龍)×
○女二(神保·古賀)4…2女一(潁川·森)×

◇準決勝戰

○高女(韓貞順·李春鄉)4…3女一(牧野·江川)×
×高女(金鍾沃·林惠玉)0…4女二(神保·古賀)○

◇決勝戰

高女(韓貞順·李春鄉) ? 女二(神保·古賀)

第一高普籠球大勝

籠協主催中等校籠球리ㅣ그…第一高普對龍中戰은 二十九日午後五時半부터 京師코ㅣ트에서 李文鎬、鷲尾兩氏審判下에열린바 結局二十二對二로 第一高普軍大勝하엿다

一高 22 (10 12 … 2 0) 2 龍中

老童陸上競技

來四日龍山運動場

高麗陸上競技協會主催의 第三回老童陸上競技大會는 旣報한바와가티 七月四日(土)午後二時부터 龍山鐵道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인바 이날의順序와 委員은 다음과갓다

▲順序 入場式午後二時正刻 1五十米競走二時三十分 2投砲丸(三種)二時四十五分 3四百米競步三時十分 4走幅跳(三種)三時二十五分 5四百米競走三時五十分 6百米競走(三種)四時十分 7走高跳四時二十五分 8四百米繼走(優勝盃)

▲大會任員 △會長兪億兼 △本部任員金圭冕 金東轍 諸南稷 崔在煥 姜樂遠 李正相 △審判長朱興根 △出發員金龍九 △審判員金守基 全有亮 李雄 李用穀 馬鳳玉 △跳投審判員劉約翰 金鍾俊、金用龍 白圭福 △監察員朴鍾憲 崔學基 △計時員郭興松 玄正柱 金東瀞 李惠澤 李鍾宰 △記錄員朴榮鎭 李吉用 朴忠根 柳海鵬 高鳳梧 △寫眞班研友寫眞舘朴弼浩

▲昨年度勝者記錄 五十米A組張權七秒一 B組金東轍七秒二 投砲丸A組張權九米○七 B組呂運亨九米○四 四百米A組玄正柱一分○八秒(獨走)B組金東轍一分○○秒 百米A組玄正柱十二秒三 B組呂運弘十三秒二 走高跳A組吳基周一米二五 B組姜樂遠一米四○ 走幅跳A組玄正柱五米二五 B組姜樂遠四米六四 四百米競步A組姜樂遠一分三七 四百米繼走A組延禧專門팀(劉基俊、兪億兼、張錫英、姜樂遠)B組籠球協會팀(鄭文基 金東轍、崔學基、玄正柱) 三種競走A組玄正柱 B組姜樂遠

甘蔗府尹歡迎競技

甘蔗京城府尹歡迎試合인 府廳對運動記者俱樂部庭球戰은 廿九日午後四時半부터 京城運動場『코ㅣ트』에서 열린바 다음과가튼 戰績으로 京城運動記者團勝捷하엿다

【府廳】 勝 【記者】

第一라운드
○(府尹·朴勝城)3…2(柳海鵬·李永善)×
×(木林·町田)2…3(山中·桑番)○
×(木代·湯山)0…2(松村·濱田)○
×(古賀·梅林)0…2(淺貝·李吉用)○
×(五十嵐·村岡)1…2(田邊·菊地)○
×(中村·姜昌熙)0…2(高鳳梧·桃田)○
第二라운드
×(府尹·朴勝城)1…2(山中·桑番)○

紅軍13A 白軍9

甘蔗新府尹歡迎野球戰은 廿九日午後五時半부터 京城球場에서 富田(球)龜井、田上(壘)三氏審判아래白軍先攻으로 開始한바 紅軍이快勝(閉戰七時十分)

白軍	2	5	0	2	0	9
紅軍	1	1	11	0	A	13A

今日의運動

▲庭球=京日主催 全朝鮮女子大會第二部(一般戰)午後四時半同中等部決勝 午後五時 以上黃金町一丁目殖銀『코ㅣ트』

아모리 고질이된 만성림질이라도

한두번치료로 急性症으로 변하여저서

곳 근치되는 세계적대혁명약이생겻다

림질은 걸린지 二三四日내에 발병되야 급성림질증세를 깨닷게되나 몹시 고통을 주다가 二三주일이지나면 만성림질로되므로 그리 고통도 늣기지안케되고 고름도 나오는분량이적고 방뇨시에 조곰 뜨거운림분비업으로 흔히 이런때에 내복약가튼 적당치못한 치료법으로 치료하시는분이 다 나은줄알고 치료를 등한하시는경우가 만흔니 그해독은 참으로 무서운것입니다 더욱 자세히말슴드리자면 뇨도속에는 해면체(海綿體)라는 적은 주머니가 모혀잇스며 그사히를 뇨도측관(尿道側管)이라는 가는 관이잇스니 그사이에 림균이들어가서 발병됨으로 아모리 퍼붓듯이약을먹어도 배속을통하야 기운이 그곳까지 가기에는 너무도약할뿐만아니라 그러케하여서 어떠케 림균이 죽을이가잇겟슴니가! 더구나 내복약에다 림균이 죽을만한 강한약을석는다면 위장과신장이 녹아버리며 오줌이아니나오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 뇨도조직심부에 뿌리박힌 림균을 죽이지못하는內服藥가튼것으로 치료하시는것은 이상과 가튼 사실을 아신이상 곳중지하시고 학설상으로나 실제로나 가장우수한 림질근치약『부라온銀겐고ㅣ루』로 치료하시면 지금까지의洗滌藥、尿道座藥、挿入藥가튼것이 절대로 범치못하든뇨도심부에속속드리뿌리박힌림균을 모조리죽이며 흥집이난 뇨도점막을 다스려주어서 병세는 처음 걸닌때와 가튼 증세로 변하게되니 그얼마나 신속한 효과가 잇는것인가를 곳 아실수잇게됩니다。더구나 아품을 다스리며 숨엇든 고름을 모조리 쏘다저나오게하야 오줌에나오는 실밥가튼 림사(淋絲)가 거저내듯이 업서저가서 단시일안에 근치되여버립니다。 더구나 약기운은 전신에퍼저서 모든 고장을 다스려주고 몰도회복되여가니 그어데 이런 깃뿜이 또잇겟슴니가! 그러므로 남편의게 림질겻은이 잇스면 반듯이 부인의게 전염됨으로 부부협력하시와 겐고ㅣ루로곳처서 속히근치식혀 버립시다。

림질은急性症때에 곳칠수록속히낫는다

종래의약으로는 엇재 급성때에 곳처도 안낫고 모도 만성 고질로 만들엇든가

무슨 병이라도 걸닌때 곳 치료하면 속히 낫는것인대 엇재서림질만은 전연(全然)편치하엿스나 좀 개인듯하다가 늘 재발케됨으로 흔히『림질은 못곳치는병이다』라는 말까지 전하게 되엿든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것이 아니고 치료법과 약의 선택을 잘못하신까닭에 병세가 만성증으로 변하게되야 이병의 특증으로 일시적고통이 개이는것이엿슴니다 그러므로 기회만잇스면 재발하는것이니 혹시 습관과 인습에의하야 먹는약(內服藥)을 복용하야 곳치시려는분이 모ㅣ도 경험하시고잇는것과가티 먹을때는 좀 낫다가 중지하면 곳 도지여저서 끈임업는 고통을 주워왓습니다。 그것은 림질치료 의학이 발달되지못한때 안쓰는것 보다는 낫다하야 내복약을 써오든것이엿스나 의학발달의따라 명백하게 되엿습니다

내복약으로는 절대로 근치가못되고 늘 재발된다

지금까지에 수만흔 내복약―가루약、환약、물약등이 생겨섯스나 장복할수록 병세는 덧처지며 무서운속병만 남겨주고 무수한 금액과 정신적고통을 환자께 늣기게하엿습니다 그러나 그외에 허는수업섯기때문에 전문치료에도 일부에서는 내복약을 써왓섯으나 독일(獨逸)의 세계적 성병대가『와렌친』『슈타인』博士가『내복약으로는 뇨도(尿道)속에잇는 림균이 죽지안음으로 림질은 절대로 근치가 못된다』라는 림상치료보고이래 내복약의 생명은 업어지고 다만 오줌을 잘 나오게하는 리뇨제(利尿劑)로만 사용케되엿습니다 그리하야 세계의학계의 고통성이되신학설『직접 환부에 치료하는약으로 우수한 銀劑라야만 림질을 근치할수잇다』라는 결론을 어더서 고심연구를 거듭하든중 우리동양에서 세계 의학계에 자랑할만한 림질근치약『부라온銀겐고ㅣ루』가 일본서 제일 큰유파안에잇는 경시청긔원병원장 좌등영선생이 수십만의림질환자를 림상치료중 실지경험연구와 신학설의탐구로 치료계의 원한을제일먼저 풀어주실 세계적대발명이 완성된약입니다

림질은 뇨도조직심부에 뿌리박힌균을 죽여야만 근치된다

겐고ㅣ루는 속속드리퍼진림균을 곳죽임으로 속히근치된다

재래의먹는약으로는 못곳치든 림질을 환부에 직접 치료하야 꼭 집어내는듯이 병화근을 들여 빼버려서 무슨약보다도 단시일안에근치식혀서 환자제현을 정신적、육체적 물질적고통에서 속히버서나게하며 치료법도 간단하고 병원의사치료에는물론이요 일반 자택치료에도 아무 염려업이 근치가되는약이니 약한방울로 단一分間이면효과가 낫타나는약입니다 늘 재발하야 고통을밧으시는분이나 급성증으로 고통에 헤매이시는분이나 다른치료법으로 아무효험을 엇기못하여 고통을밧으시는분은 조곰도 주저마시고 조선극중으로 병세를 자서히 쓰시고 통자하시면 최선의방법을알니워드리며 본보독자에한하야 특히 송료를부담하고 대금인환으로도 송약해드리오니 본제로 치료하시와 속히 전쾌의깃뿜을 어더주시기바람니다

K―137

發明創製 제창명발 吉原病院長 길원병원장 前東京吉原遊廓 전동경길원유곽 佐藤榮先生 좌등영선생

약한방울로 단二分에 효과가나타나는림질근치약이다

부라온銀 겐고ㅣ루

普及藥 (급성 만성 부인용) 一圓九十錢 三五瓦入(十七日量) 三圓八十錢 七五瓦入(三十五日量) 七圓

자택치료서무료진정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 日東製藥合名會社 振替東京三一九四三番 京城新井藥房、木村藥房 釜山大鳥、南海堂 전도약방에서판매합니다

京城版

防危欄干을 撤毀 危險千萬의 漢江鐵橋
鐵絲數線을 느려두엇슬뿐 監督當局에서 警告

벌서부터 새로 노아가는중에 잇는 한강(漢江)인도교는 오는 가을철이나 준공될모양인데 이 것의준공이 하로하로가까워오는 반면에 지금까지 통행되여 나려오든다리는 한편으로 란간가튼것을 하나둘식 철훼하여가는 중이어서 통행객들에게 여간위험을 느끼게하고잇는것이아니라 한다.

즉 새다리를 노아가라고 공사편의상 로량진(鷺梁津)쪽으로 가노려면 외조쪽란간은 전부뜨더내이고 그대신 가는다란철사를 서너줄어설피게 거려노하서 차마가비좁게 지나가게 되면 그다리를 건너가든 사람들은 갑작이 길이 마키게되므로 부득이자우쪽 란간으로 방사피해서게 되는데 이럴적마다 당자들에게는 적지안흔 공포를 이르키게된다 한다

이가티 느려노흔 철사나마그대로 섬하게 매여저잇다면 그래도 일반통행인의 불안이 얼마쯤 적을러일것이나 그것조차 공사장인부들이 삐질나게 넘나들기때문에 이미 낡고끈허저서 현재는 란간대신에 위험을 막는 아모것도 업서지니만큼 더욱 불안이 크다한다

더구나 이까닭에 그런치 안허도 자살하는 무리들이 꼬리를달고 모혀드는 이 한강다리가그처럼 들시보업는집과가튼 위험천만한 형상을 이루고잇서서 더욱 그들을 손쉽게 끄으러드리는 폐단이 업지안다한다

이가튼 사실에 비추어 소관 룡산서(龍山署)에서는 한강다리 놋는 공사장으로 이것을 경고하는한편 새다리가 완성될때까지 그위험을 막을 엇떤설비를 하도록 주의를 주리라한다

專賣記念映畵會

전매국(專賣局)에서는 전매창업 십오주년을 긔념하기위하야 오는칠월일일 오후여섯시부터 경성부민관대강당에서 영화회를연다고한다

女子基督敎節制會 開城서 盛大히 開催
一年間業績은 燦然

【開城】 본부를 서울인사정(仁寺町)에두고 전조선각지에 일백오십처의 지부를둔 조선녀자기독교절제회(朝鮮女子基督敎節制會)제칠회대회는 금년에는 특히 개성북부례배당(北部禮拜堂)에서 이십팔일 이십칠일 량일간개최되엿섯다

현재 회원총수는 사천이백이십사인으로 각지부에서 대표회원 일백오십명이 참집한가운데 회장유각경(兪珏卿)씨개회사로 대회는 개막되엿다 그런데 총무의 일년간사업보고는 실로그 업적이 컷슴을 알수잇섯다

—첫재「금주」에대한 실화소설「금주진」발행—

—절제잡지발행배포—

—절제강연 순행처가 칠십처그중강연수가 팔십번—

—금주선전삐라 이만팔천칠백매등으로 이에따라 전조선각지 지회보고도 놀날만큼 허다한 사업성적을 일일히 보고하얏다 그다음 사업토의안에잇서서 본부 지도자 장정심(張貞心)씨의 강의가 잇슨후 좌기결의사항을 장시간 토의한다음 동일오후 네시에 무사폐회하얏다는데 래회장소는 금강산(金剛山)으로 정하엿다한다。

◇決議事項

一、節制에關한書籍을少年에게指導할것

二、少年節制會를組織하야 少年節制生活을 鼓吹할것

三、其指導方法으로는 映畵講演 音樂노래等으로 敎化할것

四、男女靑少年의 性敎育을 嚴肅히 敎示할것

五、公娼私娼問題에對하야 花柳病에關한 「포스터」와 冊子를 發行配布할것

六、女性의 經濟的地位를 찾기위하야 自立的精神을 세우고 勞働에 從事할것

七、勤勞奉仕로 地方產을 奬勵愛用하고 서로交換을圖할것 以上

(사진은 대회광경)

新東學校新築移轉

【永登浦】 시흥군(始興郡)일면일교재심시에 의한 신동공립보통학교(新東公普校)는 이번에그신축공사가 준공되엿슴으로 이십륙일 도청에서 서도속(徐島屬)이 출장하야 공사검사를한후 이십칠일부터 새교사에 이반하야교수를 시작케되엿는데 일반은동교긔성회간부 리영섭(李英燮)한대흠(韓大欽)리상형(李相衡)등 제씨와 면장김구용(金九鏞)씨의 노력을 감사한다고한다

京南發展會에서 電車延長을陳情
爲先빼스라도延長해달라고 委員五名까지選定

【京南】 경성의 전차구역철폐문제로서 마포(麻浦)와 청량리(淸凉里) 왕십리(往十里)방면의 주민들이 번가려 운동을이르키고 일방중앙지대에잇는 부민들까지 철폐하기를 요망하고 잇다함은 지상의 루보되는바어니와 경남발전회(京南發展會)에서는 지난 이십오일밤에 리태원정 좌좌목(佐佐木)씨집에모혀 부민들의주요교통긔관인 전차에대하야 경남일대에도 부설도록하자는 결정을하고 위선경전의사업인 빼ㅅ스라도 운전토록하자고 교섭위원다섯사람을선정하야 경전당국의 진의를 알기로 결정하엿다한다

그요지를 아러보건대 현재이곳으로말하면 약이만오천명의다수한 인구가살고잇스나 중앙경성을 통왕하라면 십리내지 삼리가량의 보행을하고잇다 이럼으로 긔왕전차가 신룡산삼각지(三角地)를 통과하고잇스니 이곳에서부터 서빙고(西氷庫)까지 연장하도록 하라는요구이고 그러치안흐면 현재 경전빼쓰도룡산중학교(龍山中學校)압까지 운전을하고잇스니 이를위선 연장하야 리태원정(梨泰院町)까지라도운전하라는요구이다

元町、錦町間舖裝工事 南山周回路와連結
來月부터工事에着手

【京南】 상업구(商業區)와 또는 공장가(工場街)로 엄연한존재를 보이고잇는 원정(元町)일대와한강통(漢江通)일원은 여지것간선도로의 확장을보이지못하야 교통상 불편이적지안튼터인데 경성부에서는 이두곳중에서도 제일도로의 불편으로 말성이만튼 원정삼정목서부터 금정(錦町) 새창고개까지 총거리 삼백오십메돌을 십이간통으로 확장하고 세멘트로 포장공사를 하기로결정되엿다한다 이도로는 래월부터 삼개년 계속사업으로 공사착수할 남산주회도로(南山周回道路)와 련결될것이라는데 공사착수는 래월부터라하며 준공되는때는 서부와 남부간에 큰편익이 잇스리라한다

水仁鐵道鐵橋問題 住民側과解決

【仁川】 인천을중심으로 강원(江原) 충청(忠淸)각도의 산간벽지에까지 교통망을 늘이게할 수인(水仁)철도 부설문제는 저간 총독부의 허가를바더 공사중이라함은 루차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지난십일부천군(富川郡)남동면(南洞面) 포리(浦里)주민일동이 수인철도 철교부설을 당국에 반대진정하엿든바 그리유는 철교부설지점이 현재〃나루터〃이라 이곳에 철교를 부설하게 되다면 통행도로를 멀리돌니여 〃나루터〃까지 옥기게되이라는데인천서에서 서장이하 각관계들이 지난이십삼일현장을 조사한결과 주민들에게 별반 큰불편을 줄만한 사실은 업고 그리면에는 수원(水原) 경동(京東) 철도회사에서 긔지를 사용할 부천군에는 한등의 교섭이 업시 인천부와 교섭결정을 하엿슴으로 군민일동이 이를트개한것이라한다 이에 인천서에서는 쌍방에 조정에 로력하야원만해결케되엿슴으로 공사도 원만히진행중이라한다

龍山孤兒園竣工

【京南】 시내 명치정(明治町)에 잇는 불란서 교회당내 고아원(孤兒園)에서는 총독부와 기타 각방면에서 다대한원조를 바더 지난달부터 룡산 산수정(山手町)삼번지에다 총공비 일만팔천여원을드려서 고아원룡산분원(龍山分院)을 건축중이든바 금이십이일에 준공되여 의일인 이십일부터 무애고독한 고아오십명을 동분원으로 옴겨노코 참다운인간이 되도록 직업을 주기에 전력하고잇다한다

明水臺에新築하든 商工學院落成
廿七日新校舍로移轉

【永登浦】 문학사 토거산양(土居山洋)씨를 원장으로한 시내 련건정(漣建町)경성상공학원(京城商工學院)은금년사월중에 시내흑석정명수대(黑石町明水臺)에 기지 삼천칠백여평을 선정하고 이래신축 공사중이든바 수일전에 그공사가 완성되여 이십칠일 이전식을거행한후 계속하야 가을부터 제이긔공사로 본관건축에착수하리라는데 동학원은상업과 전과과 건축과 기타각과로난호워 현재 칠백여명의 만흔생도를 교육하는중이며 동지에 건축중에잇는 경성중앙보육학교(京城中央保育學校) 은로학교(恩露學校)기타 각종학교가 착착건축되여 큰발전을예긔한다고한다

始興郡의移秧 四割一分七厘

【永登浦】 근년에 드믄 한발노 매우념려되든 이앙은 지난번 비에 얼마간 급한불은끗스나 아직 륙월이십오일현재이앙상항은 불과 사할일분칠리로 작년동긔의 구할에 비하면 대단히 불량한성적이다 그러나 월말까지에는 약칠할은 넘게할터이라하며 래월중순안으로 비가온다면 그다지 큰 영향을 입지안흘것이라하야 라관되다고한다

旱魃과迷信騷動
望京臺에白骨暗葬햇다고 三郡農民이大擧殺到

【京南】 십년전에 암장(暗葬)햇든 백골이 말성이되여 조선전도는 륙십년래 가물이 계속되고잇다는 유언비어로 소동을이르켜 필경에는 경찰까지 출동한 넌센스의한막 —— 부내 보광정(普光町)에사는 김용제(金用濟)는지금으로부터 십년전에 시흥군청계산망경대(始興郡靑溪山望京臺)에다 자긔의부친을 암장하엿는다는데 이산은 녜로부터 뫼를 쓰면 가믈이계속된다는 전설이잇서 오든바 금년가티 혹심한가믈이든때 전긔김용제는 과천면(果川面)에다니는 김모란친구에게다 무심코 전긔사실을이야기한바잇섯다한다 이소리를드른그는 이를또한 외동리사람들에게다 이야기를하야 지난이십일서부터는 시흥(始興) 수원(水原) 광주(廣州)등지에서 농군들이 삼천여명이나 모혀드러 그것때문에 가믈이젓섯다고서 망경대를 삿삿치 뒤집어 파헷첫스나 십년전무덤을찻지못하고 소동만 이르켜서 이십삼일에는도한 소할과천주재소(果川駐在所)에서 전긔김용제를 소환하여다 경관립회하에 그무덤을 파도록하엿든바 그역시찻질못하고 비으로나러와잇는데 대수롭지 미신으로 말미암아 일반은 불안상태에잇다고한다

酒·담배人毒과病毒으로血液이混濁되면
動脈은硬化하고血壓이놉하저서
頭重·耳鳴·肩臂痛과 動悸喘息이놉허간다
瘀血(오혈)(梅毒)과血行을깨끗이하면 安眠되고、참튼튼하여진다

フルチ錠創製者 (前東京吉原病院) 小屋良明先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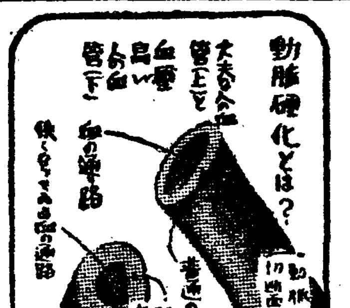
梅毒이무서운것은、한번骨髓에潛伏하게되면뼈가썩고코가썩어나려안는다、半身不隨나腦溢血、狹心症의急死를이르키는일이만타、이와가튼慘害를보게되는것은大槪單純性初期梅毒이아니라、完治되지못하얏든梅毒이멧해후에、술담배人毒과肉食毒等으로變質한潛在性綜合毒素、即古醫學에말한〃瘀血〃에關連되는때가만타、婦人들의月經의殘血과產後의瘀血이體毒에連하야〃瘀血〃이되야前記와가튼慘害를惹起한다、그러면이와가튼病의原因이되는〃瘀血〃은어떠케하면깨끗이할가?

흥은動悸、喘息等 病狀으로 腦梅毒 또는中風、腦溢血에 속게되는結果를이르킨다 何히하야快癒에引導되는가하면、그治病의一助로

吉原病院 黑便과 瘀血

에小屋先生이 奉職中、여러가지毒持患者의 治療에서、至今까지不足하든 古醫學研究가 動機가되야 이〃瘀血〃의 再檢討를 現代醫學的立場에서合理的批判은、오직 옛날부터잇는水蛭(거마리)와吸角(부앙)에依한瀉血法과破血劑(瀉下劑)로부터 脫却하야 副作用이업시 쉬웁게〃瘀血〃를體外로排泄식히는 新療法에 成功하엿다。本療法이 如

本劑는 小屋先生 永年間의體驗과苦心研究한結果의 新瀉血劑(下劑에依치안코)를 服用하면直接血液에 吸收되야 副作用이업고全身을 돌면서〃瘀血〃를體外에排泄식혀血液淨化로부터 血管에彈力을주는 黑便이排出되지안는때에는苦悶튼 症狀도自然히 快癒에로引導되는다。 苦悶하시는분들이 本書의一讀이 幾分이라도 도움되다하면 幸으로녁여져나이다。



二階오르내리는

데에도숨이차고心臟에조치못하야 急숨이러서면 眩氣로卒倒하게되다……腦人病일런지도몰은다。等으로一般은生覺키쉬운일이지만、우리의觀察에는、그와가튼症狀은 血液이混濁하야 循環이順化되지 못한까닭이다 ——이것이原因되는 近日에와서는血壓에가장注意를 集中하게되야

高血壓의危險

高血壓의危險한것은잘알면서도、그에原因이되는〃瘀血〃에依한血行의不順에基因되는것이라고 아는분은적다。血管은例外업시硬厚하야、血液의通路가甚하며 狹窄하다。이런弊害를 알은무서운毒性을가진〃瘀血〃이 血管에附着하야 血栓이되며、그血行을防止、低滯個所에依하야肩臂痛、手足저리는症、頭重、耳鳴、眩氣

頭重、耳鳴、肩臂痛으로 高血壓이지금은

長野縣 葛西清一

……瘀血療法書의 送付는참으로 고맙게바덧습니다 또 한書中에씨여잇는注意事項과自己의容態에너무나適合되여잇슴으로써반드시毒때문이라고 두려워하면서 フルチ錠을注文하엿습니다 그經過를말하면 服用하야五、六日쯤은大便이검음뿐이고 別딴効果도 보지못하엿다 十日쯤지나 漸次로 머리가輕하고 손이저리든것이낫고、耳鳴、肩臂痛도快方으로 밤에는熟眠이되고血壓은나려서떡으나기뿌게지낸다 (後略)

『瘀血』排除에 非常한好評

東京吉原遊廓病院 小屋良明先生創製

フルチ錠

主効 神經衰弱 高血壓 腦溢血 中風 心悸亢進 梅毒

藥價 十一日分 一圓 廿三日分 二圓 五十五日分 五圓

古醫學에서新發見

病毒排除 血液循環と瘀血療法 (四六判五十頁)

無代進呈 葉書로申込하면곳發送함

必讀 (梅毒、神經衰弱)

申込所 東京市京橋區西八丁堀二ノ十 古醫學研究所 電話京橋(56)二五八四番·二六三八番 振替口座東京六五三〇八番

最高級清凉飲料 三ツ矢サイダー リボンシトロン

梅雨節의 清冷飮料는 日本一의 品質을자랑하는 이優良品을定하시라!

近日市場에리본印三ツ矢印商標에 비슷한類似品이잇사오니 特히注意하시라

製鮮麥酒株式會社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〇勤人學生團樂最良〇收多無休〇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場前 博文社

陰萎·勃起不良·不感症

中井醫學博士創製·五大博士推奬 最新發明局〇塗布藥 セープレピン (세부레핀)

適應症 陰萎·勃起不良 性感增進·生殖器短小 不感症·分泌減少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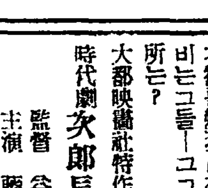
(男女共用)(價格) 一回分 五〇錢 二回分 一圓 五回分 二圓五十錢 百回分 五圓 携帶用 十圓 送料四十錢

發賣元 東京市京橋區 天醫堂 振替東京一九一二四番

合資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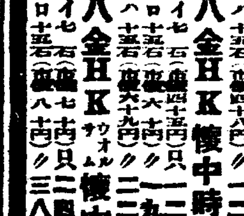
●說明書實驗報告無代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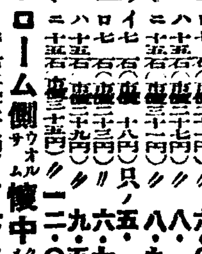
京城本町四丁目木村藥房 平壤大和町森田藥房 新義州三笠通宮崎藥房 大邱京町 日本藥房 大連浪速町 日本藥會社



●本劑는、芳香性크림狀으로局〇에少量식塗布하야 局所의血行을旺盛케하야 進興을惹起하며 男子는勃起力이强大하고 快感이增大하야 再興을促進하고 女子는 快感을 增加하야 多大한 生殖機能을 强化시키는 急速確實한 새로운 藥이다。 實驗한 最新發明藥이다。

代理店 京城南大門通一丁目 株式會社新井藥房 同本町 黑崎本店 釜山辨天町 大黑藥房 同 藤田藥房





行斷げ下値然斷

特別サビス付大賣出し

A 毎上買個一品ノ上以圓三 = 眼鏡 (老眼·近眼·遠眼·色眼鏡等御希望通り進呈) 一個宛進呈致シマス!

B 仕奉 = 一割引ニ時ノ上以打一引分五 = 特別ハ際ノ文註御上以個六 = 度一

★セイコーシャの誇り

(1) 市價三分ノ一ヨリ安イ廉價デモコンナ素晴シイサービス付賣出ハ絶對ニ他ノ追從ヲ許サズ

(2) 品質優良大衆本位ヲモットーニシ全品十五ケ年保證付

(3) 此廉價ニモ拘ラズ多數註文ノ際ハ割引ノ特典ガアル事

●註文は必ず三割以上の內金を要し送料は代引註文の方は四十錢御負擔を願ひ升

クローム側懷中 メタル付 (1) ニ九·三〇〇 (2) 三·三〇〇 (3) 四·五〇〇 (4) 五·六〇〇 (5) 八·〇〇〇 (6) 九·八〇〇

(16型) クローム側腕卷 (皮紐付) 二·五〇〇 三·五〇〇 四·三〇〇 五·九〇〇

(11型) 三·六〇〇 五·二〇〇 七·〇〇〇 八·五〇〇

(10型)

(9型)(8型) クローム側懷中 ウオルサム 四·三〇〇 六·〇〇〇 八·一〇〇 八·九〇〇 五·〇〇〇 六·七〇〇 九·五〇〇 一二·〇〇〇

(16型) 七·三〇〇 八·七〇〇 一二·四〇〇 一五·五〇〇 二二·〇〇〇 二七·五〇〇

十八金HK側腕卷時計 (9型)(8型) 七·五〇〇 八·六〇〇 九·八〇〇 七·八〇〇 八·六〇〇 一二·〇〇〇

十八金HK懷中時計 (16型) 一二·八〇〇 一九·八〇〇 二二·五〇〇

十八金HK懷中 ウオルサム 其型 二四·八〇〇 三八·九〇〇

●送金は振替·又は小爲替にて願ひます

ⓢセイコーシャ 地方時計部 東京市淀橋區上落合二ノ六一七 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

朝鮮 京城 三好化粧品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一七二七番

三好刷白粉

●工夫中 노—엔— ノーンシ

안하여머 될아우리 때學신가 는곳이하 곳이신하

◆夫원울 어가하장수 는愉고요 樂快明시 店하게머 이고되리 잇오여가 소어시

光明을일흔사람들

東劇座公演第五週 全二幕

金健……作

光明을일흔地下村의人間群!그들은그네들의環境에서永遠히버서나지못하엿다!그러나그들은단지하나의참된길이잇섯스니그들은무엇을취하엿나?이것은우리들의이야기가되고잇다

不具의안해 一幕二場

周峰·作

出演 卜基鎭、李敬換、宋海天、河芝海、徐玉汀、金英淑其他總出演

貧富의境遇 全一幕

누구나가진貧困한가운데道情도고同情도한다그러나한者가富한때에는잇든愛情도업서지고업든心情이절노나는것이人間의本性이라하겟다여기에도끗김혼悲劇은찌어내고알랍고純眞한人間이잇는品이나라난다

西大門町 電光3 三二番 東洋劇場

洛山學人……人

한사나히를사고도든두개집의사랑의싸움!名譽와富貴를超越한全人한人情과사랑밋헤서는모ㅣ든것이굴복할것이며이렁으로써만이快活한살님을할수잇는것이다

廿八日特別封切

每日二回午前十時四〇分 (但二回興行中에限하야 無說明映寫) 午後一時半六時半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畵

리차ㅡ드·뽀레스라부스키監督 聲樂王로렌스티빼트主演

메추포리탄 (MetroPolitan)

벽리赤盤藝術家로紐育메추로포리탄劇場顧問빠리톤·三十五年度米界오페라歌手의랑킨스第一位獲得한리버트가마음것銀幕을뒤흔들면서萬雷의拍手에싸일待望의最高音樂映畵

◆日活超特作映畵

나는우리재롱꺼리 (Gingers)

天才少女센·윈서朝鮮에데뷔!! 兒童映畵의명버윈、白熱的絕讚下에只今렌롤의人氣와몹지안은新進天才의登場!!눈물과수긋의交響!!

緣의地平線 前篇

—(次週封切) (三日)—

오페라劇、뮤직꼬라운드、렙콤의愛國者、로맨스乾盃、

映畵殿堂 全鮮第一 團成社

六月二十八日낫부터大公開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은畫夜二回公開! 낫一時 밤七時四十錢

米國마스코트灌超特作全發聲版 大冒險大活劇 流線怪盜列車 前篇

壯絕!痛絕!百萬哩快走列車戰慄大爭鬪!!空中과陸地와의大冒險大連續篇

活劇界의巨人 TP마크·氏快人……조온엔氏大活演

暗夜를爆走하는流線型怪盜列車를目的하는破壞魔의出現——徐想非道의才智를發現自在!닷는處影에떠비는그들—그그림자가낫타나는處所는?

大都映畵社特作映畵!

時代劇 次郎長身代り旅

監督 益田晴夫氏 主演 藤間林太郎氏 北見禮子孃

龍山桃花町 電龍三三番 桃花劇場

무지개 〃虹〃

製作指揮李東熙氏 監督……李圭煥氏 京都PCC提供! 嶺南映畵社超特作珠玉篇 當六月三十日브터超特別大興行 待望의朝鮮名篇特別大封切

撮影……藤井淸 主演……文藝峰孃 其他올스타ㅣ캐스트

錯雜可憐을極한엇던家庭의血淚史! 要斷末魔와갓치冷酷한人生의行狀記多恨!盲目의아버지를어대가서차즈라……래온의밤거리날니는눈발아래눈물짓는그人間이엇지한사람에局限하랴!!

코럼비아超特作全發聲映畵

랄바ㅣ드히리아氏大作

水標一萬哩

노ㅣ만포스타ㅣ氏主演 메리가ㅣ라이루孃助演

蒼波萬頃!一葉船의飛沫에醉해시여驚嘆夢의甘露酒에陶醉하며滿潮!榮譽의勝利를相爭하는涼味滿點!娛樂價值百%의大名畵

大每特輯全發聲

國際뉴ㅡ스

次週封切豫告 하리우드스타ㅡ合戰對抗……

黃金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浪人祭

阪東妻三郎大熱演 嵐璃德、堀川浪之介、櫻木梅子、橘落子、長田寬久也、助演

清水一角

原作 峰銀平 監督 東隆史

阪妻プロ超弩級時代劇豪華版 新興キネマ提供

瀧の白糸

入江たか子、忍田時彦主演

原作 泉鏡花 脚色 東坊城恭長 撮影 三木茂 監督 溝口健二

入江プロ超弩級豪華版 新興キネマ提供

◇晝夜三回上映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浪人祭	一、〇〇	三、四〇	七、〇〇
瀧の白糸	二、二〇	五、二〇	八、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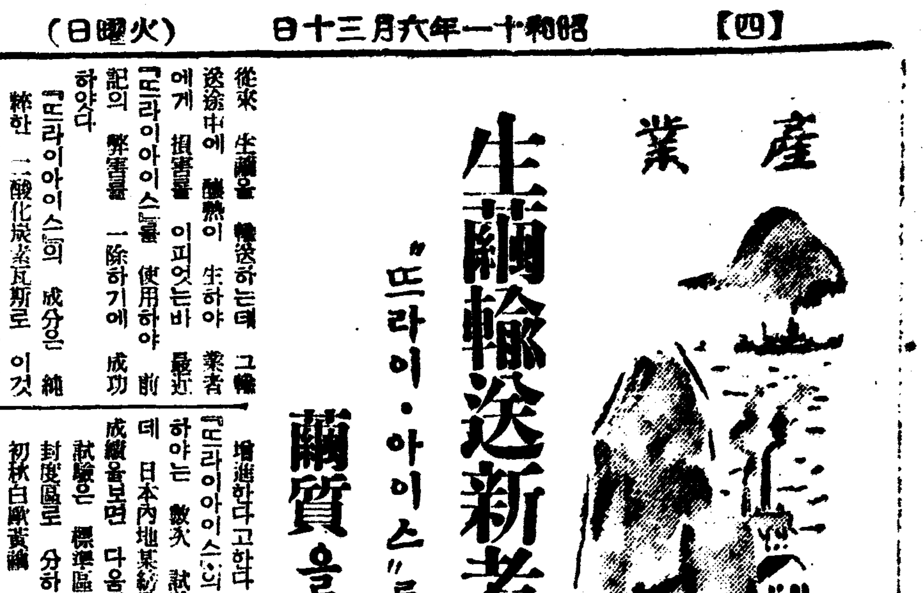
大人 學生 二十錢均一 小人 十錢均一 階上 階下 共行次第

納涼慰安短期名畫競映均一大衆料金サービス週間!!

三十日特別短期公開(三日間)

永樂町 電(本)二三〇〇番 中央館

産業



生繭輸送新考案

"뜨라이·아이스"를使用하면 繭質을損傷치안는다

從來 生繭을 輸送하는데 그輸送途中에 醱熱이 生하야 業者에게 損害를 이피엇는바 最近 「뜨라이아이스」를 使用하야 前記의 弊害를 一除하기에 成功하얏다

「뜨라이아이스」의 成分은 純粹한 二酸化炭素瓦斯로 이것을固體化한것임으로 그取扱이 至極히 簡單하며 非常히 低溫인데다 水分이나 濕氣가 全無한 特徵이잇다 따라 이것을 生繭輸送及 貯藏에 使用하면 繭을 저치지안코 冷却할수잇고 또「뜨라이아이스」의 氣化에依하야 發生하는 二酸化炭素는「뜨라이아이스」의 低溫과 呼應하야 蛹의 發育을 抑制할뿐만아니라 炭素瓦斯가 繭層에 作用하야 繰絲工程을 增進한다고한다

「뜨라이아이스」(드)의 生繭輸送에對하야는 數次 試驗을 行하얏는데 日本內地某紡績會社의 試驗成績을보면 다음과갓다

試驗은 標準區 一封度區 五封度區로 分하고 供試繭으로 初秋白歐黃繭 二十七貫箱에對하야 「뜨라이아이스」使用有無에依하야 如何히 다른가를試驗한結果 繰絲量에잇서 標準區의 對乾百匁 繰絲量은 三〇·三三匁에對하야「뜨라이아이스」使用量 五封度 까지는 三一·三入이며 生繭의境遇도 標準區가 一一·〇五임에 對하야(뜨라이아이스」를 使用한것은 一一·〇六으로 成績이 良好하엿다 그박게 繰絲時間 生絲品質도 자못 良好하얏다고한다

十年 三六、五六 八六、六五
十一年 五月까지 三五、九三 三三、八七

全北紙共同組合設置

【全北】全北道産業課에서 朝鮮 …… 目的코 計劃中이든 去二十七日午前 …室에서 創立總會를 …… 左의任員을 選擧 ▲組合長 …氏(全北産業課長) ▲理事 村元道陽 ▲監事 朴炳楠 鄭乙洙 金英培

北海道와樺太에 小野田洋灰移出

朝鮮小野田洋灰에서는 朝鮮內의 販賣가 日本內地聯合會側의 進出로 實價工場고스트六十錢乃至六十五錢以下로 低下하얏슴에 鑑하야 朝鮮의 日本內地 其他에 販路를 擴張中이든바 이지음 北海道廳及札幌鐵道局用洋灰約一萬袋을 納入하기로 決定하고 近近 川內里工場製品을 元山港으로부터 積出하기로되엇는데 價格은 朝鮮內實價보다 一袋에對하야 十錢乃至十五錢高가량으로 今後도 相當히 移出되리라고보인다

"밀"과鰛粕의 直賣會社指定

當局者 油肥統制의 改訂에 基한 今年度의 피쉬·밀과 鰛粕의 直賣에對하야는 朝鮮鰛油肥水産組合聯合會에서 愼重調査를 遂하고 總督府에서도 調査中이든바 二十九日付로써 總督府로부터左의 各社를 指定하얏다

一、피쉬·밀直賣 三井物産 三菱商事 日本食料의 三社를指定對滿輸出組合도 近近追加指定

二、朝鮮內鰛粕의直賣 需要者團體는 指定을 要치안케되어잇서 朝鮮內의 直賣指定은 三井物産 三菱商事의 二社를 指定

◇日本製粉京城支店開設

日本製粉에서는 二十七日의 總會에서 京城에 支店設置의件을 決定하얏슴으로 七月一日부터 現在의 出張所를支店으로 昇格하고初代支店長에 大穗新氏가 就任하기로되엇다

朝鮮內製粉 滿洲輸出激增

對濠擁護法發動으로促進

朝鮮內製粉의 對滿輸出은 事變을轉機로 從前 二萬피클 八九萬圓을 不出하든것이 飛躍的으로 激增하야 十年度는 一萬六千五百十八피클 八十四萬八千九百圓으로 增大하야 朝鮮內製粉도新規企業이 接踵하는情勢를誘致하고잇는데 이번의 對濠通商擁護法의 發動에依한 斯業에의 影響을 總督府에서 調査한바에 依하면 原料不安의 一面보다도 오히려 對滿進出好望의 强材料를 提供하는 狀況이다 即 朝鮮內의 製粉原料는 約十萬石을 要하는바 輸入原料 昭和六七年以降九〇%를 對濠輸入에仰하고잇서 그數量은 十年度九萬石에 達하는데 一面 滿洲國의 小麥粉需要의 三割七分은 從前濠洲粉이 占하고잇다 日滿提携로 滿洲國의 共同戰術에 依하야 그需要는 朝鮮에 求할터로 原料入手의 不便을 가바ㅣ하야 그需要增大가 크게期待되어 이미 入注가 接踵하는 狀況을 示하고잇다 그리고 最近五個年間의 小麥粉對滿輸出은 如左하다

	數量(피클)	價格
六年	一八、四〇三	五九五、四一五
七年	三七、五七	三七八、三三
八年	八九、三七	六四五、二〇八
九年	九六、五三三	六九八、四一九

日用商品市況

二十九日 京城市內 砂糖及 麥粉市況은 大體如左하다

▲砂糖 保合

砂糖은 入荷로相當하며 賣行도良好하야 今日市勢는 六十斤(百斤)에對하야

白砂糖	二一、九〇
黃砂糖	二〇、九〇
黑砂糖	一一、五
分蜜糖	一七、五〇

으로 多少 前高가 豫想된다고 한다

▲麥粉 昂騰

麥粉은 端境期와 新麥作成收穫想으로 新高를示하야 前週에比하며 二十二斤入一袋에 對하야 二十錢高로 四圓四十錢인데 이것은 來月中旬新麥出廻期까지持續될모양으로 新麥이 出廻되면 多少低下되리라고한다

春繭共販消息一束

▲漣川 漣川郡農會에서는左記와如히 場所와日程을 定하고 春繭共同販賣를 施行中이다

▲漣川 自六月二十一日 至七月九日
▲朔寧 自六月二十三日 至七月三日
▲麻田 自六月二十三日 至七月二日
▲官仁 自六月二十三日 至七月一日
▲斗日 自六月二十三日 至七月三日

▲榮州 慶北榮州郡農會에서는 去十六日부터 郡內四個所의 共同販賣所에서 施行한 春繭販賣高는 아즉 六日間의 期間이 잇슴에 不拘하고 벌서 一萬一千三百三貫六百九十匁이어서 昨年同期에 比하면 一割强의增加라하며 各販賣所別은 如左하다

共販場	販賣貫數	販賣代金(圓)
榮州	四·三四五〇·六〇	一三·四五五·四七
豐基	二·六九二·一四〇	八·三三六·九五
平恩	三·三二〇·五三〇	九·五九四·六六
留川	一·二四九·六〇	三·五六八·五一

春繭取引市勢 (農林局發表)

月日	場所	種別	最高(圓)	最低(圓)	買賣掛目(圓)	數量(貫)
六·二〇	慶南蔚山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四一·〇〇〇
〃	黃海谷山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九九·一六〇
六·二一	〃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〇三八·〇〇〇
六·二二	〃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五九·四五〇
〃	京畿水原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七八·〇六〇
六·二三	黃海谷山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二〇·九六〇
〃	〃鳳山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〇一·〇〇〇
〃	忠南牙山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五三·八六〇
〃	慶南蔚山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七·〇〇〇
〃	全南咸平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三七·〇〇〇
〃	黃海金川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三六·九六〇
〃	全南光州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〇·〇〇〇
〃	〃	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〇三·〇〇〇
〃	京畿水原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三七·九四〇
六·二四	慶北安東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九·〇〇〇
〃	忠南燕岐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七五·〇〇〇
〃	慶南蔚山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四·〇〇〇
[illegible]	黃海鳳山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南原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江東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咸平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金化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谷山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晉州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光州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順川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成川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牙山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畿水原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淸州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瑞山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金化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原州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春川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川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原州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瑞山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信川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瑞山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咸平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谷山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錦山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畿水原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信川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全州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淸州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順川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沃川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淸州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光州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金化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南原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文川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安東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襄陽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江東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金川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昏 (122)

韓雪野 作 安夕影 畵

부운(浮雲)(三)

『아이 참말 못먹겟서요』

『무얼……엥히 자아』

하고 주임은 벌적팔에 힘을 주어 정님을 끌러간다. 정님의상체는 완전히 그의가슴에 엉겨젓다.

『괴로워 죽겟서요. 토할것갓다니까』

『괴로워? 아따 그럼 안괴롭게 해주지, 주어』

주임은 눈을 게검스레 내려뜨고 정님의 몸을 둥실 둥실 추스려준다. 그리다가 불현듯 제깜에 못견되여난듯이 맘을 진정하는심인지 그러치안호면 무슨 생각을 하는심인지 눈을감고 한참 가마히 안저잇다.

톡톡치는 주임의 심장소리가 정님의억개에 몸서리나는 감각을 전하여준다.

『아이 괴로워요. 노서요』

하고 정님은 별안간 그의가슴을 쿡 고자주엇다.

그리자 주임은 눈을번적 뜨다. 그킈고는 탐스럽히 정님을 내려다보다가 억개로 한번 크게 숨을 후ㅣ내쉬고.

『웅 괴로워……뭘 괜찬어 둥실 둥……』

하며 다시 추스르기 시작한다.

『가요……이걸, 놔요』

『뭐, 가다니?……안돼, 안될걸……그런데 여보 정님이……그리지말구……하하하……』

『노쿠 술이나 잡수서요』

『암 먹지 먹어, 얼마든지……정님이 천주는 술이라면 아따 먹다뿐이겟소』

그리자 정님은 속으로『흥 그래도 틀렷서. 아직은 어림도 업서』하는 생각이 나서 혼자 빙긋이 우스며

『자아 내가 따르지요. 얼마든지 따라드리지요』

하고 술을 따르는체 하며 얼른 몸을 빼랴 하엿다.

『흥, 가길 어듸가, 요놈……』

하고 주임은 더욱 힘을 주어 연신 굿센 팔안에 정님을 모라너흐며 딴에는 무슨 애교나 부리듯이 또한번

『요놈!』

하고 우스며 외친다.

『아이 참……』

『히히히……』

『속상해서 똑 죽겟네』

정님은 그만 화가 발끈 올라서 술무장단이나 천둥이 주임의가슴을 두손으로 불이나게 울려주엇다.

『홍, 얼마든지……자아, 더두드려봐』

하고 주임은 되려가슴을 내밀고 히죽 히죽 웃기만한다.

정님은 그야성적(野性的)인 와강한 건강이 미워스나, 일부러 우서가며 빈술병을 집어들고

『참말?』

하고 그의가슴으로부터 얼골에 겨우엇다.

주임은 코허리가 싯근해짐을 깨닷으며,

『요놈이, 하하하……』

하고 더욱힘을주어 정님을껴안고 억지로술한잔을 또부어넛는다.

『앗, 뭐… 캑…』

정님은 목구녕에 술이 걸려서 그만 주임의가슴에 쓰러젓다. 그러나 쓰러지는 순간, 그는, 한번 자기의몸을 선선히락 내던지어 그의맘을 흥셔 녹혀주어가지고 거기서 교묘히 빠저나오랴는 생각이 나서,

『아이 모르겟소』

하고 제창주임의무릅에 쓰러젓다

주임은 정님의몸을 어루만지기도하고 살작할작 두드려주기도하며

『그래, 누어서…뭐 고까짓데… 인제 괜찬지?』

하고 얼굴의 떨림과 만족으로 정님을 내려다보고 잇다.

『아이 죽겟서요』

『그리기 이러케 가만누엇서』

『아니애요』

하고 정님은 괴로운듯이 다시 몸을 이르키며

『냉수…냉수 좀…!』

하고 구역이 나는듯이 손으로 입을 막는다

『아, 냉수?……』

『네……아이규 난 인제죽어요』

『괜찬어 가만 잇서』

하고 주임은 또 손뼉을 치고 연성 정님의가슴과 등어리를 문질러준다.

『카오루도 좀……』

『카오루? 그래 인제 사다주지』

『얼른 좀 갓다 주어요』

그때 문밧으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가가히온다.

그리자 주임은 술며시 정님을 방바닥에 내려뉘이고 이러서 문을 빼죽 열고나까이와 무슨말을 한다.

정님은 머리를 번적 들어 그리고는 금시 구토가 나듯이 입을 막자쥐고 주임의겨드랑이를 빠저 마루로 내달렷다. 대숨에 현관까지 달려나왓스나 신발이 보이지안흠으로 그대루 줄다름을 처 나와버렷다. 술취한 주임의 소리가 마치『도적이야!』하는것 가티들렷스나 전연못들은척하고 내뻐엇다.

림질약

淋疾藥

淋疾患者에 엇더한藥이 第一조흔가?

이것은 內務省大臣을會長으로하고, 醫藥學界의最高權威者十六名을委員으로하야 嚴密審議한後 그品位를決定하야, 日本藥局方에收載하고, 또內務省衛生試驗所에서 檢査封緘한藥劑가 我國醫療界의指針이되어잇슴으로 本社의淋疾藥은, 政府로부터醫藥學界의最高權威者가選定한日本藥局方收載

그리고 內務省衛生試驗所封緘의治淋劑 六劑을主藥으로하고 副作用이업도록配劑한公認治淋劑다

淋疾患者는 販賣所에서여러가지의廣告에迷惑치말고 곳有田도라구로申込하라

淋藥 特製(八日分)四圓 別製(八日分)一圓八 (德用十六日分)十五圓

梅毒

本社創劑의 梅毒藥은 政府制定日本藥局方驅梅劑二種과 皇漢藥數種을主藥으로하야 副作用이絕對업는 出願許可濟公認梅劑로서 지초의감창, 개래톳의 치료는물론, 제이긔전신매독, 잠복매독, 유전매독, 매독성루마지스등도본제의내복으로 곳 배독작용(排毒作用)을하며, 매독으로 일어나는 불쾌증과 국부와 전신농이 점점히박하여저서 처병의목적을달할수잇다. 무서운 매독을 손에게 유전치안토록 하로라도 빨리본사의 구매제(驅梅劑)자용하야 고치시라.

價藥 特劑(十七日分)六圓 別製(十七日分)八圓 德用(三十日分)十四圓

有田ドラッグ

高價藥配劑公開

有田ドラッグ專賣所所在地

京城郵便局前 有田도라구
龍山兵營前 有田도라구
平壤本町 有田도라구
釜山幸町一 有田도라구
群山驛前通 有田도라구
全州高砂町 有田도라구
光州本町三 有田도라구
木浦榮町二 有田도라구
大邱弓町 有田도라구
馬山京町二 有田도라구
麗水港 有田도라구
浦項本町 有田도라구
兼二浦 有田도라구
鎭南浦漢頭里 有田도라구
海州南本町 有田도라구
新義州櫻町 有田도라구
元山本町二 有田도라구
咸興本町二 有田도라구
羅南生駒町 有田도라구

肺病藥

肋膜炎 肺炎가다루

本社에서 發表한肺病肋膜炎의全快者는어느거나左記에公開한 高價藥配劑의別製治肺劑와有田血液藥等을服用하면서一方으로 올바른療養으로實際에全快되도록하는것으로서住所氏名을明記하고全快後健康體가되기까지 公表한것으로서正確하고도信用할수가잇다. 我有田別製治肺劑는歐米는勿論, 國際藥界의最高權威者들에게서選定된日本藥局方治肺劑와多數高價藥等二十二種의配合에依하야 綜合的醫治效能을 奏驗할여러가지症狀을輕快케하는公認治肺劑이다 現今은當局의取締가甚히嚴重함으로虛僞又는誇大廣告는絕對的으로不許하나左記의高價藥配劑公開가튼것은秋毫도虛僞는안이다

(時價一키로瓦의單價)

結核治療劑 醫藥學界最高權威者選定 政府制定日本藥房收載 五種藥綜合配劑
鎭咳祛痰劑 一種 外二種藥配合 七百四十圓
結核解熱劑 二種(一種 一種) 二百三十圓 三十一圓
强胃强腸劑 醫藥學界最高權威者選定 政府制定日本藥局方收載 四種藥綜合配劑
食慾促進劑 一種 外一種藥配合 二百六十圓
鎭靜劑 一種 五十二圓
消化劑 一種 外一種藥配合 四十七圓
酵母劑 一種 五圓五十錢
滋養强化劑 一種 五十二圓
호르몬劑 二種(一種 一種) 千六百圓 千二百圓

本社의藥劑가肺病과 肋膜炎에如何히有効한가를 알게되는것은食慾이增進되고排痰의調整體重의增加結核熱의解熱 기침의緩和痰의減退等으로이것을무엇보다도回復期에들어섯다는 證據인으로 放心말고 養生하지안흐면안된다 連服하야藥效가나타나기始作하면 體重이날마다날마다增加됨으로 늘달어보시라.

特製治肺劑(八日分)十圓 德用(十六日分)十九圓
別製治肺劑(八日分)十五圓 德用(十六日分)二十八圓
有田血液藥 四圓